

## 그리스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그리스인은 언제부터 그리스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리스땅에 살게 되었을까? 이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해보면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의 고조선 신화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고조선 이전부터 많았겠지만, '고조선'이라는 정체성은 단군왕검때 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땅에 살던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리스',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까?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다보면 인도-유럽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온다. 나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언어의 뿌리인 고대어를 사용했던 민족에게 인도-유럽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스인의 정체성이 인도-유럽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인도-유럽인의 후예가 지금의 그리스인 이라고 한다. 이 근거로는 그리스어가 인도-유럽어에서 나왔다는것 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인도-유럽인의 후예가 지금의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이 아닌, 그리스인의 정체성, 문화는 인도-유럽인의 영향을 받았을까?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 이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의 생각은 두가지로 갈린다. 첫째, 인도-유럽인들에 의해 유럽의 사회구조와 신념이 변화되었다. 둘째, 인도-유럽의 사회적 전통과 선사시대 유럽의 사회적 전통이 비슷했을 것이다. 이 두 가설중, 더 일리있어 보이는 것은 2번째 가설이다. 유럽과 인도-유럽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술이 발전 되었으며, 기술의 발전 이후 사람들의 관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힘이 센 남성의 권위가 농사를 시작하던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높게 평가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여성의 권위는 점차 낮아졌을 것이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첫번째 가설을 보자면 유럽사회가 평등했을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각자의 자본이 주어진 상태에서 평등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계질서, 젠더간의 불평등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사회는 어머니중심 사회였는데, 인도-유럽인에 의해 남성중심 사회로 바뀌었다는 가설은 나의 관점에서 팩트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유럽인들이 여성신을 숭배했다는 증거를 보면 또 다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여성신을 숭배한다고 해서 여성중심 사회였을것 이라는 확신은 없으므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도 점차 발전했다. 유럽이 청동기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야금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발전은 그 당시 사치품에 대한 뚜렷한 취향이 있었던 사람들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청동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사치품으로 그들의 지위를 과시했다. 청동 사치품은 지금의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야금술뿐 아니라 농업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바로 지중해성 다문화의 발전이다. 포도와 올리브를 함께 경작하게 되면서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발전까지 이루었다. 많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인구도 증가했고, 사회구조도 점차 상호의존적으로 변해갔다.

미노아 문명에서 '통치자'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통치자를 중심으로 왕궁이 건설되고, 재분배 경제체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 오래전에 커다란 왕궁이 세워졌다는 것은 상상만 했었지 진짜로 지어졌을 줄은 몰랐다. 왕궁은 얼마나 컸을까? 또 왕궁은 어떤 디자인으로 지어졌을까? 지금 당장 그 시대로 가보고 싶은 기분이다. 크레타의 왕궁은 어땠을지 상상도 안돼서 호기심을 더 자극하게 만드는 것 같다. 기원전 1700년경, 지진으로 최초의 크레타 왕궁들이 파괴되었다고한다, 그때는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나? 정말 신기하다. 지금 일어나는 지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건가보다. 집이 조금만 흔들려도 난리가 나는데, 그 큰 왕궁이 무너져내릴 정도면 얼마나 강한 지진이었을까? 여러모로 그당시에는 지구가 안전하지 않아서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 위험한 야생동물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사회, 여러 자연재해까지, 살아남은게 대단한 것 같다.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몇세기를 거쳐 그전보다 더 큰 왕궁을 건설했다. 언제 또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 힘을 들여 가면서 만드는것을 보면 사람은 다른건 몰라도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